

신다영 석사과정생, 한국연구재단 연구장려금 선정

전북대학교 신다영 석사과정생(농생대 원예학과, 지도교수 박수진)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5년도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됐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선정으로 신 석사과정생은 앞으로 12개월 간 총 1,2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기후변화 시대 농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원예작물 환경 스트레스 내성 강화 연구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구과제는 '스트레스 프라이밍을 이용한 원예작물의 환경 스트레스 내성 강화로, 고온·가뭄 등 극한 환경에서 작물의 생육 저해와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다'.

연구에서는 삼투스트레스를 활용한 반복 프라이밍 처리 기법을 적용해 주요 원예작물의 생리·분자 반응을 분석하고, 내성 증진에 기여할 유전자 후보를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전사체 기반 유전자 분석, 기공전도도 및 광합성 측정, qRT-PCR, 항산화 효소 활성 평가 등 정밀 실험이 수행되며, 연구 결과는 국내 학회 발표와 논문 게재를 통해 학문적으로 공유된다.

박수진 지도교수 "이번 연구는 단순한 스트레스 처리에 그치지 않고 반복 스트레스와 유전자 발현의 연계 분석이라는 차별화 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일반직공무원 조직문화 개선 연수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25~26일 장수교육지원청과 무주 일원에서 일반직공무원 99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생성형 AI인 ChatGPT 활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포함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체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와 함께 청렴 캠페인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되새기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 죽향동 청년회 등, 추석 이웃돕기 물품 기탁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집숙)는 지난 23일, 죽향동청년회(회장 류재왕)와 이마트24(대표 조용일)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50상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명절을 외롭게 보낼 홀몸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선물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 기탁된 라면은 1일 1가구 소분행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남성의용소방대, 추석 노암동에 생필품 전달

남원소방서는 남성의용소방대 추석을 맞아 노암동 행정복지센터에 김부각 8박스를 전달하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성의용소방대는 매년 명절마다 남원 관내 각 행정동을 순회하며 생필품을 기부해 오고 있으며, 평소에도 재난현장 지원, 소방안전홍보, 구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약하고 있다.

공은대 대장은 "앞으로도 남원 전역을 돌며 지속적인 봉사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진안군민 뭉쳤다

300여 군민 한목소리, 범군민 결의대회 열어... 단합된 의지 보여줘

진안군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강당에서 300여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염원하는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당은 군민들의 합찬 합성으로 가득 차 단합된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가 전국에서 6개 군을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민의 간절한 바람과 단합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으로써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행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진안군본부(본부장 임수진) 주관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진안군에서 발걸음을 떼어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는 임수진 본부장의 대회사로 시작으로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욱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의 축사, 그리고 범군민 결의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진안의 희망"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전춘성 군수는 "응답템 건설로 6개 면 1,830세대가 삶의 터전을 떠나고, 3,600ha의 농경지가 수몰되는 희생을 감내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진안군이 시범사업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자 마땅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시 아중호수도서관, '호수 음악여행' 공연 개최

전주시 아중호수도서관은 지난 24일 저녁 전북지역 청년음악 밴드 '도야·DOA 예술기획'을 초청해 '호수 음악여행' 공연을 개최했다.

'호수 음악여행'은 지역 예술가를 초청해 클래식·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개최하는 아중호수도서관의 음악 프로그램으로, 이날 공연에서는 '도야·DOA 예술기획'이 전주의 다양한 모습을 음악으로 담아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합쳐진 퓨전 국악을 시민에게 선보였다.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음악 밴드인 '도야·DOA 예술기획'은 △전주 심스트릿 △창원문화예술 배달서비스 △로컬크리에이터 아트페어 등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며 젊은 감각과 에너지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아중호수도서관은 9월 한 달간 △전주시민합창단의 합창 공연 △인문밴드 베이의의 음악 인문학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 공연을 개최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으며, 연말까지 이니메 클래식 앙상블 △디네투 클래식 앙상블 등 시민의 감성을 깨우는 음악



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남기 전주시 도서관생태학습본부장은 "아중호수도서관의 음악 특화 프로그램으로 감성을 깨우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면서 "아중호수도서관은 앞으로도 음악과 책이 조화를 이루는 도서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상진신협, 신중양시장에 대형 디지털 시계 기증

전주상진신협은 지난 24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위치한 신중양시장에서 '대형 디지털 시계 전달식'을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두 번째 지원 사업을 펼쳤다.

전주상진신협은 지난해부터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에는 김장철을 맞아 1,000여 개의 장바구니를 준비해 상인과 시민에게 나눠주며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행사는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마련된 대형 디지털 시계 기증은 시장을 찾는 상인과 고객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중양시장의 주요 고객층이 중장년과 어르신 등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숫자가 크고 시인성이 뛰어난 시계를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노안으로 작은 시계나 휴대전화 화면을 보기 힘들었던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무주양수발전소, 쌀 400 포대 지정 기탁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이하 무주양수발전소)가 쌀 4백 포대(1포대 10kg)를 무주군에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25일 무주를 나르미사업단에서 진행한 기탁식에서 무주양수발전소는 무주읍행정복지센터에 2백 포대, 무주장애인노인복지관에 1백 포대, 발전소 주변 마을 경로당(무주읍·적상면 15곳)에 1백 포대를 지정 기탁했다.

양해연 무주양수발전소장은 "주민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쌀을 나누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발전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는 1995년도에 준공된 순양수식 발전소로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에 물을 하루 저수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남초등학교, 불조심어린이마당 본선 도전

고창소방서는 25일, 고창남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 열린 제25회 불조심어린이마당 본선 평가를 응원했다.

앞서 지난 9월 치러진 전북지역 1차 예선에는 고창남초등학교 5학년이 참가했으며, 그중 5·1반이 최우수상을 차지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평가는 40분 동안 총 25문항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그동안 알고득하는 안전지식을 뽐내며 화재예방과 생활안전 습관의 중요성을 또래 친구들에게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북소방본부와 고창소방서는 직접 학교를 방문해 본선에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간식을 제공하며 응원의 마음을 더했다.

본선 결과는 오는 10월 13일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린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국제로타리 3670 지구와 '맞손'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대표 김안옥)과 국제로타리 3670 지구(총재 김성희)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단체는 25일 국제로타리3670지구 사무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전북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와 소외계층에 용기와 삶의 풍요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

이날 협약식에서는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에서는 김안옥 대표, 이수경 단장, 김연경 진행위원장, 오이순 사무국장 이, 국제로타리3670지구에서는 김성희 총재와 이종상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편, 국제로타리3670지구는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에 200만원의 성금을 후원했다.

/김재훈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대한민국 새단장' 등 캠페인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는 지난 24일 고창군 천변 일원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농심천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과 APBC를 맞아 '농심천심 운동' 및 전국적 국민 참여 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고창군지부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방치된 쓰레기, 영농 폐기물 등을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미정 지부장은 "농협은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농심천심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농협 등,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 전개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과 농가주부모임(회장 백혜란)은 25일 무주를 가옥리 마을 및 무주JC 만남의광장에서 농가주부모임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한 농촌 만들기 대한민국 새단장' 사업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추석과 APBC를 맞아 농촌지역의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금동 바다로마트, 추석 이웃돕기 물품 기탁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는 관내 바다로마트(대표 김봉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 10kg 50포(시가 약 160만 원 상당)를 기탁, 50가구에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바다로 마트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13년동안 명절마다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오며 '금동 기부 천사로 불리고 있으며, 김봉희 대표는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봉례 동장은 바다로마트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탁된 쌀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